

“공수부대원이란 말도 못했는데 북한군이라니…”

‘공수’로 지목된 3공수 출신 시민군 홍성필씨

극우인사 지만원이 자신이 ‘공수(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로 지목한 수백명의 광주 시민 가운데 전 공수부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전 공수부대원이 그동안 죽은 이들에게 미안해서 말 못했던 사연을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털어냈다. 그는 피해자인 광주 시민과 가해자인 계엄군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못했다. 39년이 지난 후에야 그는 “결국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산다. 나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천하에 못된 사람이다”고 말했다.

12·12 맞선 김오랑 중령 등과 친분 77년 제대, 80년 5월 부대원들 만나 시민군 훈련…집단발포서 구사일생 “참아온 세월 억울, 지만원씨 고소”

“~하는 함성에 밖으로 뛰어나갔다. 동부소방서 근처에서 시위대와 합류한 홍 씨는 광주역 앞에서 있었던 계엄군의 첫 발포 소리를 들었다.

“타다타다”하는 소리를 피해 법원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자전거에 스피커를 달고 가두방송을 하던 전옥주씨의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 주기도 했다고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밤을 새고 21일 오전, 다시 광주역으로 나갔다가 역 지하에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얻어맞은 남성 과 여성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시신을 리어카에 싣고 시민군이 몰던 트럭에 매달아 옛 전남도청까지 향했다. 도청 앞에서는 공수부대가 앞에 총 자세로 도열해 있었다.

시민들은 버스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고 화염병도 던져졌다. 도청 위에서는 군용 헬기가 수차례 이·착륙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군중 틈에 끼어 ‘어어’하다 분수대 앞까지 밀려온 홍 씨는 ‘타타타타’하는 무수한 총성 소리에 그대로 몸을 돌려 동부경찰서쪽 골목으로 피했다.

계엄군의 집단발포였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계엄군의 동태를 살핀 후 도로에 날부러진 부상자 한 명을 처음 본 남자 두명과 함께 부축해 인근 ‘홍 안과’로 데려가 총상을 치료받게 했다.

“공수부대가 어떤 부대인데…대항하면 개죽음이다” 두려운 생각에 백운동형 집으로 피신해 하루 밤을 보냈고 다음날인 22일 다시 금남로로 나섰다.

전날 오후 계엄군이 철수하면서 벌써 많은 시민들이 갈반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채였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갈반 소총을 메고 수류탄을 달랑달랑 차고 다니는 것을 봤다.



공수부대 출신 시민군 홍성필씨

“너 이리다 터지면 다 죽는다”며 안전편을 고 정시켜 주고 광주공원에서 무기를 나눠준다는 이야기에 그도 발길을 천변으로 향했다.

광주공원에 모인 시민군들의 자세는 공수부대원이었던 그가 보기에 엉성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시민군을 지휘하던 사람이 총 잘 다루는 사람을 찾았다. 칼빈을 몸에 견착시키는 것부터 수류탄 사용법, 간단한 제식훈련을 시켰다.

당시 홍 씨처럼 시민군에게 총기를 가르친 이들이 몇몇 있었다. 홍 씨는 20~30명의 시민군을 따로 맡아 농성동 잠업시험장 3층에서 경계를 섰고 한다.

홍 씨는 이때 함께 한 시민군을 ‘1소대’로 불렀다. 이때 그는 박카스 병을 늘어 놓고 칼빈으로 백발백중시키며 소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웠다고 했다.

저녁에는 계엄군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상대로 경계 사격을 하기도 했다.

23일 시민군이 스스로 무기를 반납하기 시작 하면서 홍씨도 도청으로 돌아가 무기를 반납했지만 이내 지원동 방면에서 계엄군 움직임이 포착됐다. 그러면서 다시 시민군측의 ‘특공대(25일부서는 기동타격대)’가 구성됐다. 이들은 전정 옷을 입고 다시 무장했다.

홍 씨는 이때 찍힌 사진이 지만원이 지목한 11·12광수의 사진이라고 했다.

소태동의 환환자 협회까지 와서 계엄군과 교전을 앞두고 총기를 테스트했지만 가늠쇠도 맞지 않아 도무지 싸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총기를 반납했다.

그리고 홍 씨를 찾아온 형님을 찾아 돌아가면서 이틀간의 시민군 활동을 끝냈다고 했다.

그 뒤로는 공수부대가 잡으러 올까 두려워 눈 길을 따라 장성으로 돌아갔다. 27일 도청에서 최후까지 저항하던 시민군이 진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잡혀갈까봐 친척을 통해 당시 중동 범이 일던



홍성필(오른쪽)씨의 3공수여단 시절 고공낙하 훈련 전 모습.



지만원이 지목한 11, 12번 광수 사진. 홍씨는 “23일 지원동으로 지원가던 상황에 찍힌 사진이다”고 설명했다.



지만원이 지목한 11, 12번 광수 사진. 홍씨는 “23일 지원동으로 지원가던 상황에 찍힌 사진이다”고 설명했다.

쿠웨이트로 출국해 1년 뒤 귀국했다. 그 뒤 결혼도 하고 사진관을 운영하다 12년 전 문을 닫고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다 올해 초 우연히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앞을 지나던 홍 씨는 지만원이 ‘공수’로 지목한 사진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런 사진이 찍힌 줄도 몰랐는데 심지어 두장에 걸쳐 11번 광수와 12번 광수로 연이어 지목돼 있었다.

홍 씨는 “광주에서 공수부대원 모임도 못할 정도로 조용히 지내는데 북한군이러는데 그냥 놔두고 싶겠습니까”며 “다음 고발 소송인단에 꼭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8일 기념식에서도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려 참여할 예정이다.

홍 씨는 “당시 함께 했던 ‘1소대’ 대원들을 다시 보고 싶다. 혹시 기사를 보게 되면 연락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혜성기자 zorba85@srb.co.kr

취업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생 모집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전문기관인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국비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안내

응시자격 발달장애인 구직자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훈련직종 제조기술 및 서비스(1개월~6개월 과정)

교육특징

- 교육훈련비용 전액 무료(국비)
- 훈련교재 및 식사 무료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 지급
- *월 최대 28만4천원 지급
-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 *취업 후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입학안내

모집인원 00명

접수기간 수시 접수 **접수방법** 유선 및 방문을 통한 접수

전형방법 센터 자체 입학선발평가를 통해 훈련생 선발

선발평가 기초학습, 심리/직업평가, 의료평가 및 면접 등 실시

직업체험관 운영

이용대상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등

상담문의 ☎ 062)380-0600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7층 (광주도시공사 빌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원모집

병동 확장에 따른 직원모집 [관절·척추·내과·종합검진센터]

모집부서	인원
간호사(병동 3교대)	0명
나이트 전담 간호사	0명
기숙사 제과 (신입 초봉 3,400만원)	
간호과장	1명
약사	1명
심사실장	1명
물리치료사	남 0명 여 0명
영양사	1명
조리사	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방법(E-mail) : ss0327@hanmail.net

- 광주 북구 신용동 692번지 (첨단2지구 광주은행 옆)

문의 H. 010-9699-7587

☎ 광주바로병원 [관절·척추·내과 종합검진센터]

직원모집

효정노인전문병원과 미래를 함께 할 성장하고 의욕적인 가족을 모집합니다.

모집내용	중축 개원(병동 증설)
모집부서	군무형태 / 기타
간호사	주간근무, 3교대, 이브닝 전담, 나이트 전담
간호조무사	3교대(경력자 우대)
식당 조리원	10시30분~18시10분

▶ 대기(Waiting)간호사 가능

급 여 : 최고 대우

▶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 특 전 : 최신시설의 기숙사 완비, 통근차량 운행

▶ 출 : 퇴근 차량 운행 (송정공원역 셔틀버스 운행)

▶ E-mail : pki2023@hanmail.net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우. 62407)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252-1

☎ 062)943-1588

후. 010-2873-0748, FAX. 943-1589

☎ 효정노인전문병원

Hyojung Silver Hospital

나와 가장 가까운 내손안에 JOB

인터넷 + 모바일 + 신문 동시개재

다양한 업종 채용 정보를 한눈에!

세분화된 업무검색

검색서비스를 통해 1:1 채용정보 획득!

신라방 JOB